

갱更

2026.9.2-9.20
두산아트센터
Space111



두산아트센터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본주

DAC Artist
DOOSAN
Art Center
Artist

공연예술 분야의 40세 이하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 선정하여 신작 제작, 작품개발 리서치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지원합니다.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OOSAN encourages and supports young artists and
their innovative endeavours

아티스트
Artist
(2008-2026)

백혜경(연극창작자)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서동민(극작가)	박지혜 연출
	손상규, 양조아, 양종욱 배우
이경현(극작가)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빈자리 없음〉	〈폭스파인더〉〈죽음과 소녀〉
본주(작·연출가)	
〈갱更〉	양태석(드럼아티스트)
	〈Drum? Quest Solo〉
강동훈(극작가)	〈솔로 드럼 퍼포먼스〉,
〈도그 워커의 사랑〉	앨범 〈Human Fractal〉
박주영(작·연출가)	
〈마른 여자들〉	김은성(극작가)
	〈빨〉〈목란언니〉
배해률(극작가)	
〈시차〉	여신동(무대디자이너·연출가)
신진호(연출가)	〈나는 나의 아내다〉〈배수의 고도〉
〈애도의 방식〉	〈사보이 사우나〉〈목란언니〉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강현주(작·연출가)	〈잠 못드는 밤은 없다〉〈인어도시〉
〈잘못된 성장의 사례〉	〈마이 아이즈 웬트 다크〉
진해정(작·연출가)	〈폭스파인더〉
〈러브 앤 인포메이션〉	
	성기웅(작·연출가)
진주(극작가)	〈가모메〉〈소설가 구보씨의 1일〉
〈클래스〉	〈깃븐우리절날〉
추다혜(국악창작자)	
〈광-경계의 시선〉	이자람(국악창작자)
	〈판소리 단편선-주요섭 추물/살인〉
이승희(국악창작자)	〈사천가〉
〈몽중인-나는 춘향이 아니라,〉	
〈동초제 춘향가-몽중인 夢中人〉	서재형(연출가), 한아름(극작가)
	〈청춘, 18대 1〉
김수정(작·연출가)	
〈김수정입니다〉〈이갈리아의 딸들〉	
윤성호(작·연출가)	
〈꿈이 아닌 연극〉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 사람〉	
이경성(작·연출가)	
〈워킹 홀리데이〉〈비포 애프터〉	
〈서울연습-모델, 하우스〉	



백혜경(연극창작자)
Baek, Hye Gyeong
Play artist



서동민(극작가)
Seo, Dong Min
Playwright



이경현(극작가)
Lee, Kyeong Heon
Playwright



본주(작·연출가)
Bonjoo
Playwright · Director



강동훈(극작가)
Kang, Dong Hoon
Playwright



박주영(작·연출가)
Park, Ju Young
Playwright · Director



배해률(극작가)
Bae, Hae-young
Playwright



신진호(연출가)
Shin, Jin Ho
Director



강현주(작·연출가)
Kang, Hyun Ju
Playwright · Director



진해정(작·연출가)
Jin, Hae Jung
Playwright · Director



진주(극작가)
Jin, Ju
Playwright



추다혜(국악창작자)
Chu, Da Hye
Minyo Artist



이승희(국악창작자)
Lee, Seung Hee
Pansori Artist



김수정(작·연출가)
Kim, Su Jung
Playwright · Director



윤성호(작·연출가)
Yoon, Sung Ho
Playwright · Director



이경성(작·연출가)
Lee, Kyung Sung
Playwright ·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박지혜 연출
Park, Ji Hye
Dire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손상규 배우
Son, Sang Kyu
Actor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조아 배우
Yang, Jo A
Actress



양손프로젝트(창작그룹)
양종욱 배우
Yang, Jong Ook
Actor



양태석(드럼아티스트)
Yang, Tae Seok
Drum Artist



김은성(극작가)
Kim, Eun Sung
Playwright



여신동
(아트디렉터·연출가)
Yeo, Shin Dong
Art Director



성기웅(작·연출가)
Sung, Ki Woong
Playwright · Director



이자람(국악창작자)
Lee, Ja Ram
Pansori Artist



서재형(연출가)
Seo, Jae Hyung
Director



한아름(극작가)
Han, Ah Reum
Playwright

본주는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8년 극단을 창단해 작가와 연출을 겸하고 있는 연극인이다. 가능한 한 창작극을 공연하려 하고(그의 이력에 번역극이 없다), 본인의 문제의식을 직접 써서 희곡화한 작품에 아이디어를 더해 연출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두산아트센터 DAC Artist 선정 등 굵직한 상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데, 그 관심이 반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만큼 연극에 대한 애정이 깊고 아이디어가 풍부한 연극인이다. 그런 본주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본주의 공연을 보며 떠올랐던 단어들을 나열하기로 했다. 본주는 주저 없이 탐험하고, 깊고 넓게 탐색하며, 인간과 연극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연극인이다.

탐험하는 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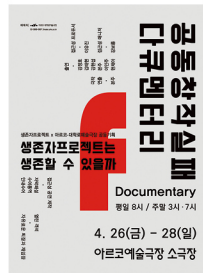
탐험(探險)

「명사」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

연극인으로서 본주의 첫인상은 ‘강인하다’였다. 시쳇말로 ‘센 언니’. 체구는 많이 마른 편이지만 포니테일로 올려 묶은 머리와 동그란 눈은 거침없고 강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런 이미지는 아마도 작품과 연관 지어 만들어진 듯하다. 직접 겪은 것들을 연극으로 만들어내는 것. 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작활동은 가장 손쉬워 보이지만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을 수상하며 본주를 연극계에 각인시킨 작품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2024)는 바로 그 용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본주가 2018년 창단한 극단 이름이 ‘생존자프로젝트’다. 단원들과 함께 공동창작을 기획하였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려 하였으나 결국은 공동창작이 실패한 면면을 담게 되었다. 연출가로서의 고민, 공동창작의 어려움, 함께 하는 단원들과의 관계 등 극단 이름을 널리 알리고자 했던 공동창작은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했다. 본주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다큐멘터리 연극을 만들게 되었고, 영리한 연출을 통해 관객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였다.

실패담을 공개하기는 쉽지 않다. 너나없이 성공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세상에 실패한 이야기를 누가 들어줄까? 그렇기 때문에 실패담을 연극화하려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위험을 무릅쓰는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2024) 공연 포스터



<윙소녀>(2025) 공연 포스터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2024) ©황호규



일이다. 그럼에도 본주는 과감하게 실패의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냈다. 그것이 밋밋하지 않았던 것은 개척교회 청년부의 익명 채팅방이라는 설정이 겹쳐졌기 때문이다. 무대는 그 자체가 객석이다. 관객은 텅 빈 객석을 마주하고 앉는다. 무대 뒤에 투사되는 영상은 공동창작이 성공하지 못한 과정을 보여주었고, 무대 객석에는 본주를 비롯한 배우들이 채팅방의 익명 유저가 되어 등장한다. 청년부 사역의 고단함을 공유할 수 없는 현실, 공동창작의 명분만큼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이 겹치면서 예술의 영역이 현실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극장 공간을 전복적으로 활용한 연출적 감각은 실패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함께 하는 것이 가져온 불편함의 진실을 깊이 성찰하게 만들었다. 그 덕분에 비록 생존자프로젝트의 공동창작은 실패했지만, 연극계에 강력하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다. 탐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탐험의 내용을 주저 없이 드러내는 본주의 모습이다.

탐색하는 본주

탐색(探索)

「명사」 사라지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자세히 살펴 참음

본주의 작품들은 단번에 해석되지 않는 여러 층위의 서사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작품 창작의 기본 자세가 탐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생존자프로젝트의 창작극 시리즈인 <윙소녀>(2024 초연, 2025 재연) 역시 여러 인물들이 여러 겹의 서사를 가지고 있어 깊은 사유를 유발한다. 개발도상국 NGO에서 활동하는 친구를 찾아간 연영은 담뱃잎을 따는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그곳의 문화와 여러 인물들을 접하게 되는데, 특히 까이라는 아이를 통해 스스로 지워낸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많은 것들을 공감하게 된다. 일단, 담뱃잎을 따는 아이들이라는 설정, 개발도상국이라는 설정은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

환경이다. 느리고, 효용과는 거리가 먼 채 인습과 관습에 얽매어 있는 존재. 의사인 연영 눈에는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보일 뿐이다. 그러나 까이를 관찰하고 공감하게 되자 과거의 자신을 환기하면서 한 뼘도 성장하지 못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다. 비루하다고 생각했던 공간과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치유하게 된 연영. <립소녀>는 기억과 상처, 그리고 치유를 다층적으로 말하고 있다.

2020년 초연했던 <공기없는세계>(2021 재연)는 연결고리가 없어 보이는 고래연구사와 소설가가 불안한 병리적 증상으로 만나면서 '숨'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한다. 상괭이를 통해 숨까지 도달하면서 인간의 불안과 실존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2022) 역시 다큐멘터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공간을 재구성하면서 우리에게 기억이란, 공간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다.

이처럼 본주의 탐색은 끝을 모를 깊이가 있다. 전혀 다른 존재들을 결합하면서 궁극적인 질문에 도달하거나, 서로 다른 각자의 상처를 토닥이며 관객에게도 치유의 손길을 내민다. 한 겹의 단순함을 거부하는 탐색의 자세는 겹겹의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본질, 인간 존재의 원형을 향하고 있다.

탐구하는 본주

탐구(探究)

「명사」 진리, 학문 따위를 파고들어 깊이 연구함

탐험을 주저하지 않고, 깊은 탐색의 자세를 갖춘 본주가 이번에는 연극 <갱更>을 통해 탐구를 시작했다. 조기갱년기를 마주하게 된 자신이 스스로 근원을 찾는, 그래서 무엇을 새로 해야 하는지, 무엇에 적응해야 하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갱년기는 50대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고, 그래서 노화의 징후로 받아들이는다. 그런데 아직 노화는 먼 일이라 생각했던 사람에게 '조기'라는 말을 붙여 갱년기라고 하니 큰 충격이다. 본주는 그

<립소녀>(2025) ©올하우스



충격을 자신의 몸을 탐구하는 데에 집중했다. 이 몸이 노화되고 있다면 그동안 어디에 몸을 썼던 것인지, 이 몸은 어디서 온 것인지, 늙어가는 몸은 무엇을 잃는 것인지, 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등등. 그런 탐구의 과정에서 <갱更>이 창작되었다.

조기갱년기를 맞은 피영은 자신의 몸에 적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느닷없이 나타난 할아버지라는 존재도 버겁다. 고아처럼 자란 엄마에 대한 연민은 할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바뀐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마음대로 내칠 수 없는 건 할아버지의 통장 때문이다. 경영난을 겪는 피영이 안타까운 엄마가 할아버지의 보상금 통장을 건네며 위기를 넘기자고 제안했다. 딸 때문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엄마. 그런 엄마를 바라보는 피영. 치매 때문에 과거에 묶여 사는 할아버지. 3대에 걸친 인물들은 제 각각 자신의 방식으로 자식을 사랑했고, 사랑을 받았다. 그것을 확인하면서 피영은 새로운 시작을 결심한다.

몸에서 출발한 탐구는 부모와 조부모로 거슬러 간다. 이 몸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원과 원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할아버지는 공장에서 원팔을 잃었고 기억도 점점 잃어간다. 함께 살지 못한 죄책감에 가진 것 전부를 딸에게 건넸고 그것이 당연하다는 할아버지. 피영은 엄마와 할아버지의 몸을 통해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까다롭기 그지없는 어린이집 급식을 선택한 것도 피영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방식임을 몽글몽글한 돼지고기로 표현한다.

조리실은 식재료와 조리사들의 공간이지만 단순화시키면 몸과 먹는 것이 공존하는 곳이다. 몸에서 시작된 탐구는 생명의 근원인 존재들을 찾아가고, 이어서 먹는다는 행위의 의미로 옮겨간다. 부모의 몸을 먹고 자라는 자식들, 자식의 몸을 먹고 살아남는 부모, 결국 몸과 먹는다는 행위는 관계와 실존의 영역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탐구 과정을 관객과 함께 하기 위해 객석을 양면으로 배치한 것도 본주답다. 무대 너머 관객을 바라보면서 실존하는 몸을 시작으로 무대 위 인물과 관객이 함께 탐구하자는 의도가 효과적으로 제시된다. 서사는 물론이고 무대 연출까지 탐구과정으로 설계한 본주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집요하게 탐구하는 연극인이다.

연극인 본주는 자신의 실패한 체험을 용감하게 연극으로 만들어내면서 과감한 무대 연출을 실험했고, 서로 무관해 보이는 존재들의 관계를 탐색하면서 기억과 상처, 공존의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다. 거기에 몸에서 출발한 탐구가 먹고 먹히는 관계를 거쳐 생명의 원형과 보편성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연극적으로 보여준다. 극작과 연출을 포함해 무엇 하나 허투루 넘어가는 것이 없는 본주의 연극 작업은 그래서 깊고, 다채롭고, 두텁고, 흥미롭다. 연극인 본주의 향후 행보가 기쁘게 기대되는 이유다.



본주

작·연출가
DAC Artist
극단 생존자프로젝트 대표

작·연출

〈8월, 카메군과 모토야스 강을 건넌 기록〉〈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릴소녀〉〈박테리아 이분법〉
〈면목동: 기억에 관한 다큐멘터리〉〈공기없는세계〉〈면목동〉

수상 2024 제61회 동아연극상 '신인연출상' 〈공동창작 실패 다큐멘터리:
생존자프로젝트는 생존할 수 있을까〉
2023 제19회 서울창작공간연극축제 '작품상' 〈박테리아 이분법〉

작가 노트

1. 먹고,

작업하는 동안 잘 먹지 못합니다. 입이 짹짹하고 속이 얹혀버립니다.
예민한 탓입니다. 음식 대신 몸을 굽아 먹으며 지속하던 일이 미워지기
시작할 때, '갱(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삼키는 이야기를 쓰는
내내 먹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밥 먹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몸이 아프고 나니 무엇을 먹고 힘내야 하는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은 밥 안 먹어도 배부른 일이 있다고
믿었기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가족도 먹고, 친구도 먹고, 동료도
먹고, 그랬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지난 시간을 곱씹으며
미처 소화하지 못한 자기증오와 화를 죽과 끓여 자주 먹었습니다.

2. 자고,

작업하는 동안 잘 자지 못합니다. 한두 시간마다 벌떡 일어나버립니다.
불안한 탓입니다. 다시 노트북을 펼치고 무의식에 떠돌던 생각을
정리하곤 합니다. 다른 작업자는 어떤 안식에 머물러 쉬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과로가 아닌 조기 갱년기 증상이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
와닿지 않았습니다. 일이 없으면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생각했던
몸의 신호가 앞으로 오랜 시간 함께해야 할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
여러 질문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는 자는 동안 크고, 어른은 자는 동안
상실하는 걸까요? 미처 자라지 못한 미숙한 이의 늦은 성장통을 안고,
비슷한 경계에 선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모두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들이 짙어질 사회도 그렇습니다.

3. 살고,

여전히 연극을 만들며 삽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나와
바깥의 세상이 실 새 없이 충돌하며 삽니다. 지난해에 경제난을
심하게 겪고 매정한 사회를 마주하고 나니, 예술과 정의와 같은 거창한
구호보다 먹고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예술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부단히 애썼던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목표 삼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과 '잘사는' 것 사이에서 더 솔직하고 건강한 인간이
되길 원합니다. 기로에 서서 그 울퉁불퉁한 삶을 함께 통과하는 것이
더 생동한 연극으로 나아가리라 믿고 갑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자전적
이야기도 용기 내어 뱉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먹고,

다시(更),

삽니다.

재정난을 버티며 운영을 이어가는 청년 창업 조리실에는 각기 다른 시대를
통과해 온 세대들이 모여 음식을 만든다. 학교 급식실을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난 피영은 조기 갱년기 진단을 받고 상실해 가는 자신의 몸을 마주한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할아버지의 등장에 피영은 부양을 거부하며,
엄마 금옥과 함께 그가 가져온 산재 보상금을 두고 갈등하기 시작한다.



이 이야기는 조기 갱년기를 맞은 ‘피영’이 운영하는 한 소규모 도시락 업체를 배경으로 진행된다. 이곳에는 피영과 더불어 다양한 세대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사회생활 경력이 가장 짧은 20대의 도로시부터 계약직 노동자인 30대의 바리, 피영과 함께 급식실을 그만두고 동업을 시작한 40대의 몽고, 부엌일이라면 도가 튼 60대의 안나(금옥)까지. 한 공동체 안에서 ‘노동자’로 뭉뚱그려졌던 이들의 세대 정체성은 노쇠한 몸 위로 참혹한 노동의 상흔을 드러내고 있는 80대 천태의 등장과 함께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특히 몸의 전환기와 사업의 위기를 함께 맞은 피영은 노동의 쓸모를 다한 채 ‘주글주글한 몸’으로 나타난 천태를 마주하며 크게 동요한다. 천태의 몸을 바라볼수록, 그의 과거 이야기가 조리실 바닥에 끈적하게 내려앉을수록, 피영은 변해가는 자신의 몸을, 자신이 어느새 기성세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 자신의 역할을 마냥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감각하게 되기 때문이다.

시대의 차이가 부딪히는 공간

그저 한 사람이 늘어난 것뿐인데, 피영의 조리실에서는 라면 하나 끓여 먹는 일만으로도 세대 갈등이 촉발한다. 세대 갈등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세대를 마주하며 서로의 차이와 경계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된다. 산업재해로 왼팔을 잃고도 국가를 맹신하는 천태의 공동체주의가 없다면, ‘내가 있어야 주방도 있다.’는 도로시의 개인주의 역시 온전히 설명되지 않을 것이다. 차이와 경계는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회학에서는 경제적, 문화적 조건과 이념, 역사적 사건 등 공통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우리)과 ‘타인’(그들)의 세대를 구분한다. 세대 간 경험의 간극이 클수록 갈등의 양상도 첨예해진다.

한국은 서구 선진국들이 약 250년에 걸쳐 이룩한 성장을 불과 70여 년 만에 달성했다. 세대 갈등을 연구하는 고승연은 이러한 초고속 압축성장을 경험한 한국 사회의 특징을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란 동일한 시대에 함께 존재하기 어려운 것들이 특수한 역사적 조건으로 인해 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 현상을 뜻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 전후의 기근을 겪으며 전근대에서 근대로 이행한 세대,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세대,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서 개인주의가

확산된 탈근대의 시간을 살아가는 세대가 함께 존재한다. 다시 말해, 20대부터 70대 이상에 이르는 서로 다른 세대의 삶 속에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의 비동시적 시간이 동시에 흐르고 있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 태어나 자녀를 낳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인 약 30년을 한 세대의 주기로 보기도 하지만,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급격한 변화를 거듭한 한국 사회에서는 세대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담론이 반복해서 형성되어 왔다. 광복과 한국전쟁, 산업화와 경제 성장, 군부체제, 새마을운동, 철강 산업 발전과 반도체 산업 육성, 민주화 운동과 대통령 직선제, 서울올림픽 개최, IMF 외환위기, 인터넷 보급, 스마트폰 보급, 플랫폼 경제 성장, 코로나 팬데믹... 한국 사회가 전근대와 근대, 탈근대를 압축적으로 통과하는 동안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조건은 빠르게 변화했고, 각기 다른 시기에 성장한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과 가치관을 지닌 세대로 구분되었다.

자신의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에 대한 몰이해는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산업화 세대인 천태, 베이비붐 세대인 금옥, 88만원 세대·밀레니얼 세대인 피영과 몽고, MZ세대인 바리, 디지털네이티브인 Z세대 도로시가 삶과 노동을 대하는 태도, 가치관에서 극명한 간극을 보이는 것 또한 이 때문이다. 숨 가쁘게 변화를 거듭해 온 한국 사회에서 각 세대가 경험한 현실은 그만큼 달랐고, 그 차이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간극으로 차곡차곡 쌓여왔다. <갱更>의 조리실은 바로 그 시대의 차이가 한 공간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장소로 존재한다.

그러나 작가는 피영이라는 인물을 통해 세대가 어느 한 축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흐르는 것이며, 누구나 생애 주기에 따라 전환기를 맞게된다는 사실을 짚어낸다. 출생, 학업, 결혼, 노동, 은퇴 등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거치는 생애의 과정에서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각 세대는 자신이 속한 생애 주기에 주어진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며, 혹은 그것이 뜻대로 수행되지 않는 데 좌절하며, 현재를 살아나갈 뿐이다. 무대 위, 각자의 방식대로 자신의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는 인물들처럼.

다만 피영은 자신이 속한 세대의 일반적인 생애 주기보다 조금 이르게 신체적 노화와 경제적·시대적 전환의 징후를 경험한다. 그로 인해 자신 혹은 자신의 다음 세대가 앞으로 맞닥뜨릴 시간을 한발 앞서 통과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고, 이 과정을 그저 맨몸으로 지나갈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렇다면 무엇을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 무엇을 씹고 삼켜야 하는 걸까. 어쩌면 피영이 자꾸만 구역질을 하는 것이 갱년기라는 신체적 증상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 고승연 『우리가 싸우는 이유』, 풀앤비, p.73.

먹고 먹히며, 잊고 잊히지며, 살고 살아지는

천태는 자신의 왼팔과 맞바꾼 1억 3천이라는 숫자가 찍힌 통장과 함께 수십 년 만에 가족을 찾아온다. 피영은 '돈만 주면 애비 노릇 하는 줄 아는' 천태와 그를 덥석 자신의 공간에 들인 금옥이 못마땅하지만, 금옥이 당연하다는 듯 자신에게 건넨 천태의 통장을 선뜻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완강히 거부하지도 못한다.

조리실의 노동자들은 한쪽 팔을 덜렁거리며 멀뚱히 서 있거나 소일거리를 하는 천태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들에게 가닿지 못한 채 허공을 크게 맴돌다 자꾸만 바닥으로 추락한다. 자신의 몸을 내어놓고 국가에 충성하며 산업화를 이룬 역군이지만, 천태는 여전히 빈곤하다. 이 작은 조리실에서 뺨뺨한 몸으로 엉거주춤 돌아다닐 뿐, 조리실의 노동자들은 천태에게 쉬이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오로지 60대인 금옥만이 자신의 아비와 딸 모두를 부양하려 한다는 점이 쓰린 현실을 반영한다.



무대 위 조리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그 주변에 놓인 수많은 스테인리스 조리 기구들은 한국의 경제 발전을 폭발적으로 이끌며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철강 산업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다. 천태가 몸을 바쳐 일군 시대의 산물인 이 매끈한 조리대 위에서, 조리실의 노동자들은 누군가 먹고, 씹고, 삼킬 것을 만든다. 조리실 자체가 한 사회를 먹여 살리는 노동을 의미하는 거대한 메타포로 자리하지만, 현시대와 사람들은 이곳을 외면하며 중요하지 않다는 듯 치부한다. 온갖 노동이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스테인리스 조리대에는 얼룩이 남지 않는다. 천태의 땀과 피도, 조리실 노동자들이 손질하는 고깃덩어리의 잡내도, 그 어떤 노동의 흔적도 남지 않는다. 사회와 시대가, 바로 우리가, 우리를 먹여 살린 노동의 시간과 그 몸들을 끊임없이 지워내고 외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피영의 집착적인 걸레질을 통해 목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내 피영의 걸레질이 멈춘다. 피영은 자신에게 들이닥친 생의 전환과 피붙이를 삼키기를 거부하듯 구역질을 하던 그 몸으로 다시 천태를, 그리고 자신의 몸을 바라본다. 피영의 결심, 그 순간부터 이 연극은 기묘한 비현실을 덧입는다. 관객들은 피영과 조리사들이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서 가르고, 분해하고, 삶고, 고아내는 것의 물성 그 너머에 있는 것, 그 안에 축적된 시간과 시대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피영이 이 몸에서 저 몸으로 넘어가기 위해,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해 무엇을 삼키기로 작정했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물질의 시각화와 비시각화

무대 위 조리실은 제법 현실적으로 구현됐다. 공간과 조리도구의 배치뿐만 아니라 공연을 준비해나가는 동안 배우들은 피영의 도시락 업체에서 판매할 주력 메뉴를 함께 구성하고, 실제 레시피를 참고해 메뉴에 들어갈 식재료와 조리 과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채소를 다듬거나 고기를 써는 동작 또한 세밀하게 구현하며 장면을 만들어 나갔다. 이 공간을 통해 노동의 몸과 움직임, 노동의 집약성을 드러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조리실의 인물들은 일을 쉬지 않는다. 이들은 도시락에 들어가는 음식의 재료를 끊임없이 다듬고, 썰고, 버무리고, 가열한다. 칼리(피영)는 레시피를 만들고, 몽고는 조리 순서와 방법을 지시하고, 바리와 도로시는 지시를 따라 재료를 다듬고, 안나(금옥)는 식기를 설거지한다. 하물며 천태마저 빗자루를 들고 이곳저곳을 살핀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끝과 식재료를 따라 바빠 움직이는 시선 속에서, 음식 만들기의 과정은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노련하게 수행된다. 칼끝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 식기류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 식재료 준비 순서에 따라 나열된 그릇들... 이 모든 것이 뚜렷한 물성을 드러내며 눈앞에 실재하는

가운데, 정작 진짜 식재료만은 무대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거대한 스테인리스 조리대를 포함해 이 무대 위에서 등장인물들이 다루는 모든 것들은 웬만해서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생산되었으나 노동의 흔적은 말끔하게 지워진 것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저 한 시대의 산업이 남긴 생산물로만 기억되는 것들이 무대 위에 시각화된다. 반면, 육신과 같이 썩어 없어지는 것들, 산업의 재료가 되었지만 형태를 남기지 못한 것들, 끝내 기억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먹어 삼키는 것들은 분명한 물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배우들의 움직임을 통해 이들이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무엇을 씹고 삼키고 있는지를 유추할 뿐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는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삼켜버렸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무대는 비시각화된 물질과 시간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비워둠으로써, 잊힌 몸과 노동의 시간을 역설적으로 가장 강하게 감각하게 만든다.

무엇을 삼킬 것인가

〈갱更〉의 조리실에서 누군가는 끊임없이 먹을 것을 만들고, 누군가는 그것을 먹고, 또 누군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진 것들이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 시대를 살아낸 몸과 노동의 시간은 보이지 않는 형태로 다음 세대의 삶 속에 남아 다시 그들의 몸을 이룬다. 어쩌면 피영에게 필요한 것은 앞선 세대의 시간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그중 무엇을 자신의 몸 안으로 들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어떤 것은 끝내 소화되지 않아 다시 뱉어내고, 어떤 것은 몸 안에 남아 다음 삶을 이루는 일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앞선 몸이 남긴 것을 먹으며 또 다른 몸이 되고, 지나간 시대를 삼키며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질문해본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삼킬 것인가.





부록1~3은 <강> 테이블 작업 시 대본 스테디를 위해 드라마터그가 리서치 및 제공한 자료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드라마터그 주

부록1. 한국의 근현대 경제발전사와 <강> 등장인물의 성장 배경

연도	한국 경제·사회	작품 속 인물
1944	일제강점기 말 식민지 경제 아래 산업기반이 거의 없었으며, 식량과 자원이 일본으로 수탈되던 시기. 빈곤과 생존이 일상의 과제였다.	
1945	광복 식민지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국가 재건의 기반은 매우 취약했고, 사회 전반이 혼란을 겪었다.	천태 출생
1950~1953	한국전쟁 국토와 산업시설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이산가족과 전쟁고아가 발생했다.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대부분 농업이나 가내수공업 형태의 노동을 하다가, 미국 등의 원조 물자(원당, 원면 등)를 기반으로 설탕, 밀가루, 면직물을 생산하는 '삼백 산업'이 중심이 되는 수입대체 산업이 시작되었다.	
196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국가 주도 산업화 정책이 본격화되며 '잘 살아보세'라는 성장 담론이 사회를 이끌기 시작했다. 1962년 세계은행(IBRD) 보고서 등은 한국이 설정한 수출 목표가 지나치게 높으며 실패를 장담했으나, 당시 국가 정책 및 경제 지도자들은 북한에 체제 경쟁에 밀려 나라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독특한 안보적 위기감으로 인해 무모한 도전을 시작한다.	
1966	수출 중심 경제 본격 성장과 경공업 확대 농촌 인구가 도시 공장으로 이동하며 노동력이 국가 성장의 핵심 자원이 되었다.	금옥 출생 (1967)
1960년대 후반	나일론 실과 구로공단의 탄생 선진국의 낡은 기계를 들여와 만들기 시작한 '나일론 실'이 큰 기회가 된다.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수출 공단인 '구로공단'이 조성된다. 1960~70년대 농촌에서 올라와 공장 바닥에서 밤낮으로 일했던 여공들의 노동이 주요했다.	
1970	새마을운동 시작 농촌 근대화와 공동체 동원이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었으며, 근면·자조·협동이 사회적 미덕으로 강조되었다.	

1973~1979	철강&중화학공업 육성&압축성장 가속화. 한강의 기적 경공업으로 모은 종자돈을 바탕으로, 철강,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산업이 급성장하며 압축성장이 가속화되었다. 장시간 노동과 개인의 희생이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었다. 중동 건설 현장으로 '수출된 노동자'들이 있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되고, 천연자원도 부족했던 대한민국이 수출 주도형 경제 개발 정책을 통해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어냈고, 박정희 정부는 이를 '한강의 기적'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용했다.	
1980년대	반도체, 전자산업 발전 & 고도성장, 도시화, 중산층 확대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과 함께 메모리 반도체 투자 또한 확산되며 전자산업이 발전한다. 이와 함께 컬러TV, 아파트, 자가용이 보급되며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민주화 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1985	반도체 투자&'3저 호황'(저유가·저달러·저금리) 시작 직전 '3저 호황'을 계기로 한국 경제는 전례 없는 성장기를 맞았다. 부모 세대는 성장의 가능성을 믿었지만, 이 시기에 태어난 세대는 이후 IMF를 맞이하게 된다. 또한, 한국 제조업과 반도체 산업이 세계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한다.	피영 · 몽고 출생 (1986)
1987	민주화와 중산층 형성 6월 민주항쟁과 더불어 경제개발을 명분으로 억눌려왔던 임금 인상과 노동 3권 보장의 요구가 전국적인 노동자 대투쟁으로 분출한다. 특히, 국내 중화학공업 벨트의 대기업 제조업 노동자들과 대형 광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대규모 파업을 통해 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곧 내수 시장 확대와 중산층 형성의 계기가 된다. 경제 성장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큰 사건이다.	
1988	서울올림픽 개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성장국가'로 인정받는 상징적 사건이 발생한다.	
1992	소비사회 확대 1989년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 이후, 1992년에 이르러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브랜드 소비, 경쟁 중심 문화가 일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바리 출생 (1993)
1994	세계화 정책 추진 한국을 세계 경영의 중심 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다.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및 자본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세계화·정보화'를 기치로 내걸고 영어 조기 교육 도입 및 대학 자율화 등 근본적인 교육 개혁을 단행했다.	

1997	IMF 외환위기 대량 실업, 기업 구조조정, 정리해고가 확산되었고, 비정규직이 빠르게 증가했다. 한국 사회의 평생직장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해외 경제학자들은 한국의 IMF 외환위기를 지나친 과잉 투자와 단순한 시장 점유율(양적 성장) 증가의 비극이라 진단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때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 및 수익성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바꾸게 된다.	
1998~2002	초고속 인터넷 전국 보급, IT벤처 붐 IT기업이 성장하고, 인터넷 경제가 등장한다. 인터넷, 소프트웨어, 게임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이룬다.	
2000년대 초	IMF 이후의 사회 구조조정·비정규직 확대가 일상화되었으며, 청년세대는 취업난과 불안정 노동을 당연한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도로시 출생 (2001)
2003	카드대란, 청년고용 악화 가계부채 문제가 본격화되었고, 청년고용 악화와 소비 위축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청년 취업난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다.	
2010년대	저성장 고착, 고령화, 청년실업, 양극화 확대&스마트폰 보급, 플랫폼 경제 성장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실업, 부동산 가격 상승, 자산 격차가 사회 전반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N포세대', '헬조선' 등의 표현이 등장했다.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청년실업 등은 선진국형 복합 위기로 손꼽힌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배리 보스워스는 한국 경제성장의 주역이었던 세대의 은퇴에 대해 '일하는 동안 오직 성장에만 매진하느라 정작 개인의 노후 보장과 국가적 복지 시스템을 충분히 쌓아 올리지 못한 그들이 드러났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스마트폰의 보급과 이에 따른 플랫폼 경제가 성장하며 모바일 산업,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노동자가 확대된다.	
2020	코로나19 팬데믹 비대면 노동과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했고, 돌봄 노동의 가치와 사회적 불평등이 다시 조명되었다.	
2025~2026	초고령사회 진입&AI 확산 저출생과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노동인구 감소와 돌봄 부담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세대 간 책임과 복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젊은 기업의 출현과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 '혁신'과 같은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부록2. <강> 등장인물의 경제적·사회적 배경

인물	세대 개념	성장한 경제	살아가는 경제
천태	산업화 세대	전쟁경제	산업화
금옥	베이비붐 세대	압축성장	민주화·고도성장
피영	88세대·밀레니얼 세대	IMF	저성장·돌봄사회
몽고	88세대·밀레니얼 세대	IMF	저성장·돌봄사회
바리	MZ세대	IMF 이후	불안정 노동
도로시	디지털 네이티브(Z) 세대	플랫폼 경제	소비경제·초고령사회

스터디 참고 문헌:

- KDI 한국개발연구원 발간 『알기 쉬운 한국경제 발전사』, 심재학·김은숙·임효상 집필.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경제와 노동체제의 변화』, 조성재 정준호 황선웅 집필.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문화사회학으로 바라본 한국의 세대 연대기』, 최샛별 지음.
-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5-10호, 『한국 경제·산업정책의 변천 과정 연구』, 정훈·여영준 집필.
- <기록으로 보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https://theme.archives.go.kr/next/economicDevelopment/primary.do>

참고 영상:

- KBS 다큐 <세계 석학이 본 대한민국 경제 100년> 1부~4부.

부록3. 한국사회 내 노동 형태의 변화

시대	노동의 특징	몸이 사용된 방식	노동기 해당 인물
1940~1950년대	생존을 위한 노동	살아남기 위해 몸을 사용하는 노동. 농업, 막노동, 복구 노동이 대부분이었다.	천태(유년기)
1960년대	국가를 위한 노동	개인보다 국가의 성장을 우선시했다.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노동은 애국이자 의무였다.	천태(청소년기)
1970년대	공장 노동과 장시간 노동	노동시간이 길고 강도가 높았다. 몸을 희생해 경제성장을 만든 시기였다. 여성 노동자들의 봉제·전자산업 노동이 크게 증가했다.	천태, 금옥(유년기)
1980년대	산업화의 결실과 노동운동	노동은 생존뿐 아니라 권리를 요구하는 일이 되기 시작했다. 민주화와 함께 노동권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천태, 금옥(청소년기)
1990년대 초	소비사회와 평생직장	대기업 취업과 안정된 직장이 성공의 상징이었다.	천태, 금옥, 피영·몽고(유년기)
1997년 IMF 이후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평생직장이 무너지고 해고와 경쟁이 일상이 되었다. 노동은 안정이 아닌 불안의 영역이 되었다.	금옥, 바리아버지, 피영·몽고(청소년기), 바리(유년기)
2000년대	성과주의 노동	효율과 성과가 노동의 기준이 되었다. 자기 계발과 경쟁이 일상화되었다.	금옥, 피영·몽고, 바리(청소년기), 도로시(유년기)
2010년대	플랫폼 노동과 감정노동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고 플랫폼 노동이 등장했다. 육체노동뿐 아니라 감정과 태도도 노동이 되었다.	금옥, 피영·몽고, 바리, 도로시(청년기)
2020년대	돌봄노동의 재조명	팬데믹을 거치며 돌봄, 급식, 물류, 의료처럼 사회를 유지하는 필수노동의 가치가 다시 주목받았다. 동시에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다.	금옥, 피영, 몽고, 바리, 도로시



강혜련
몽고 역

연극 <은의 허><손가락 걸고><몸 기울여>
<메데이아: 화살, 심장, 더러운 피><착생안티식물고네>
<문라이트 오키나와><그 여름><무서운게 딱 좋아>
<더 라스트리턴><덜메이드><번아웃에 관한 농담>
<유니버설 스튜디오><모자, 숨, 스물다섯><춤의 국가>
<마른 대지><오문오방: 무릉도>
<우리는 이 도시에 함께 도착했다>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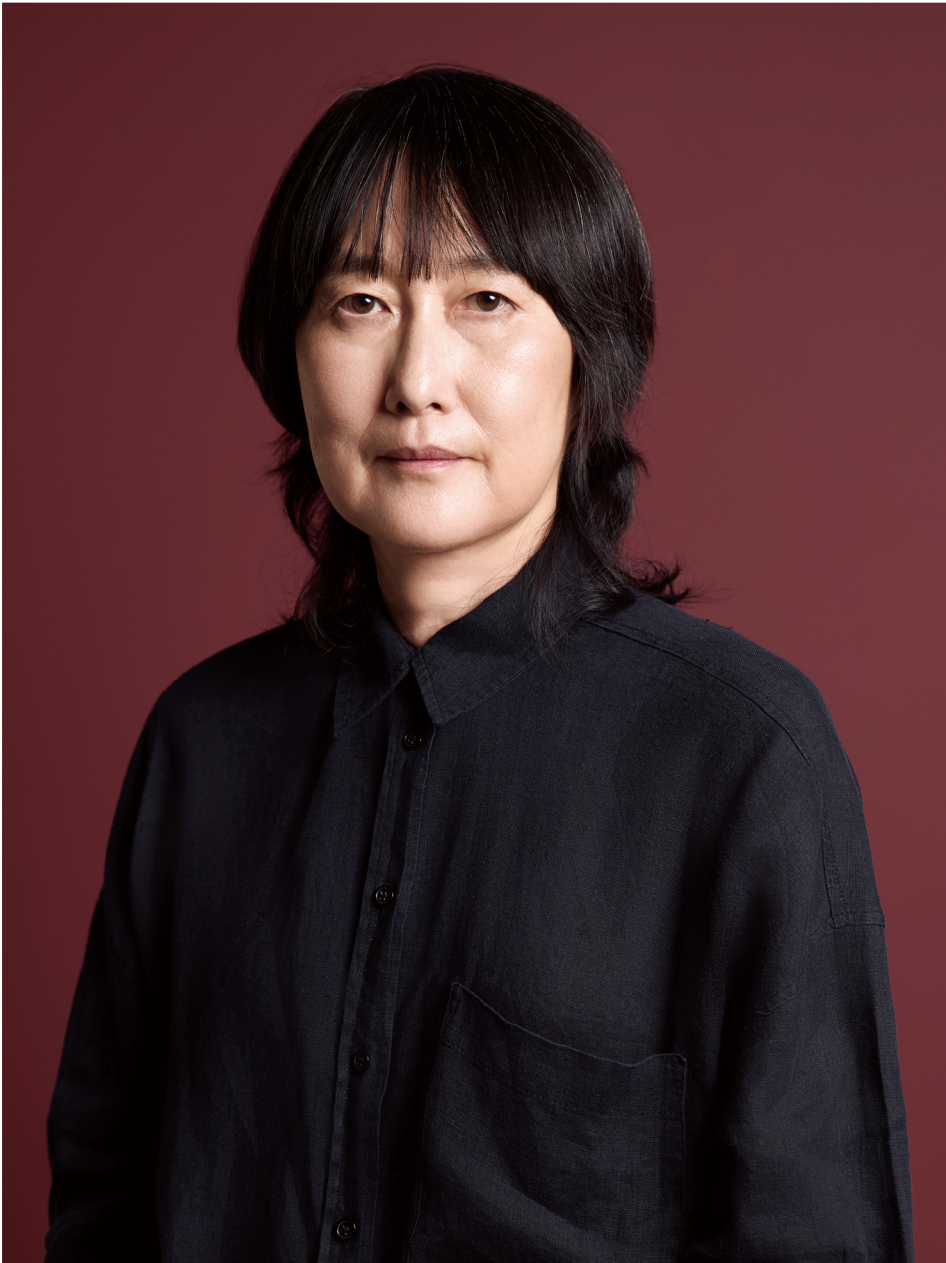
공상아
피영 역

연극 <당연한 바깥><편입생><아버지와 아들><불신의 힘>
<한때 사랑했던 여자에게 보내는 구소련 우주비행사의
마지막 메시지><여기가 집이다><바람난 삼대><비연소>
<양덕원 이야기> <씨, 베토벤><짬뽕><날 보러 와요> 외



곽영현
도로시 역

연극 <몸:Have,Make,Live with><어느 날 문을 열고>
<알바의 집,배로나르다><유리 동물원><걸리버스>
<윌리로먼 비긴즈><The maids in Korea>
<미디어 온 미디어><Oh The Yellow>
<베르톨트 브레히트의 '거리두기' 효과 창출을 위한
연출과 연기술연구 -코로나바이러스를 중심으로>
<면역리허설 3부작><메이드 인 스타그램>
<코인세탁소><Bye Cycle>외
수상 2022 제59회 동아연극상 유인촌신인연기상
<걸리버스>



김은희
금옥 역

연극 <변하는 이야기><빅 마더>
<히스테리 앵자이어티 춤추는 할머니><노스체>
<시라노 드 베르주라크><누수공사><고목>
<너 자신이 되라><생활의 비용><베로나의 두 신사> 외



이주협
바리 역

연극 <나의 땅은 어디인가><안젤리나 졸리 따라잡기>
<스 와이프!><마지막 면회><베를린의 동편><시차>
<물고기 뱃속><성공적인 직업생활><러브 앤 인포메이션>
<몬순><FBW><ANAK> 외



조하석
천태 역

연극 <세메테이><바나삼촌><동물원 이야기>
<라몰의 땅: 땅의 아이><태풍이 오던날><광인일기> 외
영화 <다우렌의 결혼><유령><자산어보><소리도 없이> 외
드라마 <애마><우씨왕후><삼식이 삼촌><모범택시>
<경이로운 소문> 외





이 글은 2026년 6월 30일 첫 리딩부터 첫 공연까지 <갱>이 만들어져 온 흐름을 연습 과정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연습일지에서 발췌해 구성했다.

“이 작품의 어떤 특정한 태도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제안하기보다는, 여러 세대의 관객들이 보고 각각의 세대에 맞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는 작품이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있다.” — 연출 본주, 6월 30일 연습일지

첫 리딩_ 2026년 6월 30일

모든 배우와 스태프가 모여 첫 대본 리딩을 진행했다. 리딩 후에는 각 파트 감독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작품의 방향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연출은 공연 대본을 크게 2막 구성으로 상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1막이 사실적인 재료들을 적극적으로 무대 위에 올린다면, 2막에서는 그 재료들을 해체시켜 간다. 장르적으로 드라마는 끝까지 유지하되 서사를 구현하는 방식에서 양식을 바꾸는 것, 그래서 1막과 2막의 성격과 질감이 완전히 다른 막으로 나뉘는 것이 이번 연출의 방향이었다.

천태의 시선에서 공간은 고정되지 않는다. 조리실이라는 공간은 물리적으로 하나지만, 기억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 천태가 인식하는 공간은 달라진다.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지만 정작 그 공간을 조리실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은 아이러니가 극 전반에 깔려 있다. 무대 위 요소들은 산업화를 상징하는 물질과, 노동으로 열감 있고 뜨거워진 인물들의 몸이라는 두 층위로 설계됐다.

“이 극에서 스테인리스 얼룩은 과거에 내 몸을 갈고 훼손시켜 가면서 갈아 넣었던 노동을 상징한다. 이 얼룩들이 후반부에 가서는 피영이 아무리 닦고 지우려 해도 어쩔 수 없이 무대 위에서 표면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 연출 본주, 6월 30일 연습일지

“먹고 먹히는 상징과 은유가 각각의 세대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방식인 것 같다. 오늘 리딩을 통해 전체 리듬감이 붙으면서 입체적으로 읽혔다.” — 드라마터그 박다솔, 6월 30일 연습일지

테이블 작업_7월 2일~7월 12일 (총 7회)

연습 초반은 앉아서 작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테이블 작업에서는 장면마다의 목적성과 인물들이 가야하는 지점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후 말의 방향과 몸의 방향을 목적에 따라 움직여보며 동선을 잡아가는 흐름을 그렸다.

첫 이들은 작품과 우리를 연결하는 데 쓰였다. 인물들의 이름이 라틴어와 신화적 어원에서 온 것이라는 이야기 — 질긴 가족으로 싸인 인물 ‘피영’, 파괴하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에서 ‘갱(更)’과 맞닿은 ‘칼리’, 도정하기 이전의 곡식인 ‘바리’, 순수한 영혼이자 보호받는 대상인 ‘도로시’, 모두를 아울러 끌고 가는 리더 ‘몽고’. ‘먹다’와 ‘먹힌다’의 포식 관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수용하고 주체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의 ‘삼킨다’까지 이야기가 이어졌다.

여섯 인물이 통과해 온 시대를 연표로 놓고, 압축성장을 목도한 천태부터 베이비붐과 민주화 시대의 금욕, 그리고 이 시대를 거쳐 각자도생으로 넘어온 몽고와 피영, IMF 시기의 유년을 보낸 바리, 그리고 현재 GEN-Z 세대라고 불리는 도로시까지 각 세대의 노동관과 불안을 함께 살폈다.

“‘세대’라고 카테고리를 나눴지만 사실 개인들은 경험도, 체득한 것도, 안전과 생존도 모두 각기 다 다르다. 사회적 시대가 배출한 인물들의 좀 더 확장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 연출 본주, 7월 2일 연습일지

7월 3일부터는 각 막의 장면 목적을 장면 단위로 공유했다. 이 시기 연출이 반복해 강조한 것은 인물의 부조리하고 논리적이지 않은 면이었다. 조리실 안에서 표면적으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흐르지만 그 속에 분명히 있을 부자연스러운 순간들, 그것이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긴장으로 발현되는 지점을 포착하는 데 집중했다.

“인물들이 너무 논리적이거나 너무 자연스러우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많다. 누군가는 실수를 하거나 미움 받는 선택을 하기도 하는, 그런 면들을 말이 되게 우리가 끌고 갈 수 있을까.” — 연출 본주, 7월 3일 연습일지



방언지도가 합류해 부산 사투리를 다뤘다. 같은 경상도 사투리어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감각, ‘-데이’와 ‘-다이’ 같이 끝 어미의 미묘한 차이 같은 것들을 한 대사씩 짚어갔다.

초반부에는 사투리의 억양을 적응하기 위해 더 강조된 감정과 억양이 실린 대사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익숙해지는 과정에 따라서 과장된 지점들을 덜어내면서 자연스럽게 발화하는 방향으로 사투리의 디자인을 잡아갔다.

장면 만들기_ 7월 13일~7월 26일

“한번 해보자.” — 배우들

장면 연습은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만 지정하고 나머지 동선은 움직여보면서 찾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나 인물들의 노동하는 몸이 보이는 장면이 많은 만큼 배우들이 감각하고 움직이면서 인물 본연의 움직임과 방향이 흘러나오길 바랐다. 손목과 어깨, 허리와 걸음걸이, 익숙하게 재료를 집어 드는 손과 반복해서 같은 자리를 닦는 몸에도 그 사람이 지나온 시간이 남아 있기를 바랐다.

재료들마다의 무게, 각종 조리도구들마다 달리 움직여지는 몸의 속도, 스테인리스를 만질 때 올라오는 정서 같은 것들이 매일 조금씩 쌓였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이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살아 나가려고 하는 결로 흘렀으면 좋겠다고, 일사천리보다는 우왕좌왕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품 비즈니스와 움직임

장면의 뼈대가 서자 그 위에 살이 붙기 시작했다. 100개가 넘는 많은 소품이 나오는 만큼 장면별 소품 비즈니스를 정리했다. 행주를 개수대에 빨아 분무기로 조리대를 닦는 손, 도시락과 수저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서, 음식 재료들과 갖가지 조리도구를 이용하여 재료들을 손질하고 보관하러 오가는 길까지 조리실에서의 노동 과정을 동작 하나씩 확정해 갔다. 움직임 감독과 함께 장면별 동선의 원리와 움직임 장면들을 정리했고, 장면마다의 주요 목적을 다시 한번 문장으로 붙들었다.

디테일과 반복_ 8월 2일~8월 9일

8월부터는 실제 무대에서 사용될 음악과 함께 무대를 상정한 등·퇴장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연습실의 장면들이 조금씩 무대의 조건 위로

옮겨졌다. 각 장마다 등장하는 인물들의 목표를 점검하면서 각 장면마다 인물 각각 설정된 목표를 가지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충돌하는 방식이 명확하게 보여지게 하고, 그 목표에 따라서 인물들의 정서와 감정 디테일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장면을 잘게 나누면서 연습을 했다.

첫 공연을 향해_ 7월 31일~8월 31일

7월 31일 첫 런스루를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동선과 장면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장면이 설명적이었는지, 어떤 장면은 더 오래 머물러야 했는지 등 확인할 수 있었고 한 인물의 감정이 다음 장면까지 이어지지 않는 부분,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 전체 흐름 안에서는 흐릿해지는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인물마다 한 번의 호흡, 대사를 시작하는 순간, 칼을 드는 타이밍까지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잘게 나눈 장면들을 다시 이어붙여 확인하고 다시 전체 런스루를 통하여 전체의 템포를 확인했다.

8월 13일에는 두산아트센터 닥트(D-Art)클럽 회원을 초대해 주요 장면을 시연하고 대화의 자리를 가졌다. 8월 14일에는 전체 스태프가 참여한 런스루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세대’, ‘노동’이라는 커다란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상실과 생존’ 그 사이에 서 있는 존재가 ‘피영’이라는 지점을 바라보면서 이전보다 더 쪼개져 장면의 디테일을 채우고 그것을 맥락 안에서 체화하는 런스루를 반복하는 일로 채워지고 있다. 피영이 천태를 재단하는 손을 부위별로 정밀하게 가져가는 일, 절단된 몸이 돌리는 순간의 역동, 조리사들이 요리를 준비하는 과정, 후면 객석에서도 보이도록 몸을 돌리는 각도 같은 것들이다.

연습일지를 쓰는 자리는 매일의 말들이 어떻게 장면이 되어 가는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자리였다. 여기에 옮긴 것은 그중 아주 일부분. 두 달 동안 여섯 명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조리실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던져 온 질문들이, 이제 관객 여러분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다시 이어지기를 바란다.

무대디자인 노트

남경식

무대디자이너

갱(更: 다시 갱)

연극 <갱更>의 인물들은 지금을 살고 있지만

각기 다른 시대의 지금을 살고 있다.

조기 갱(更)년기를 겪고 있는 영양사 피영의 조리실에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며, 각자 본인만의 삶의

고비고비를 마주하고 있다.

어쩌면 그들은 삶속에서 각자의 갱(更)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어제처럼. 오늘처럼...

연극 <갱更> 공간은 담백하다.

물리적으로 피영의 조리실을 보여주고 있다.

조리실은 다양한 세대의 흔적이 섞여 있다.

낡고 오래된 조리실의 타일바닥과 천장의 배기구,

쉬지 않고 돌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풍기...

대형 스테인리스 조리 테이블과 커다란 조리통과 다양한 식기들...

무대는 각자의 시간의 흔적을 보여준다.

무대는 너른 직사각형의 구조이며, 양면에 객석을 두었으며,

중앙에 조리실 공간을 두고 있다.

조리실은 낡은 타일바닥이며, 중앙에 메인 조리대가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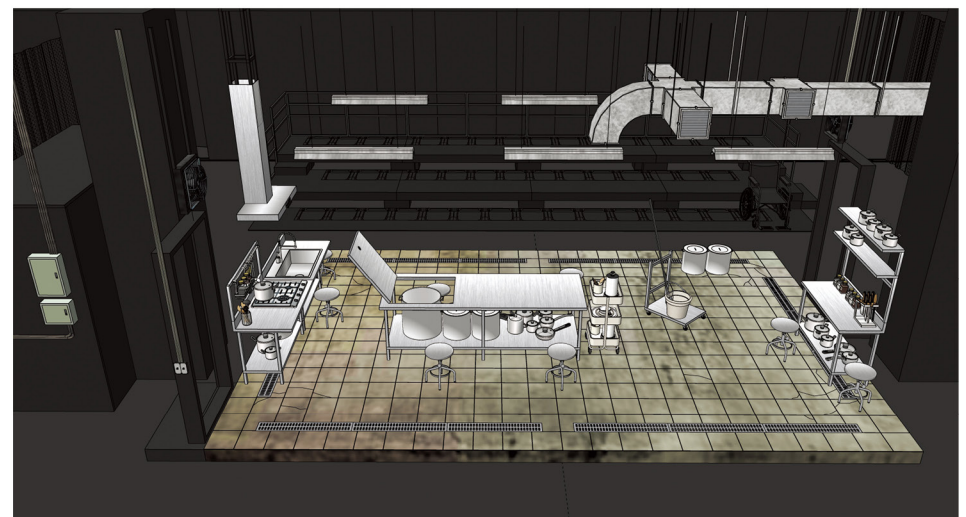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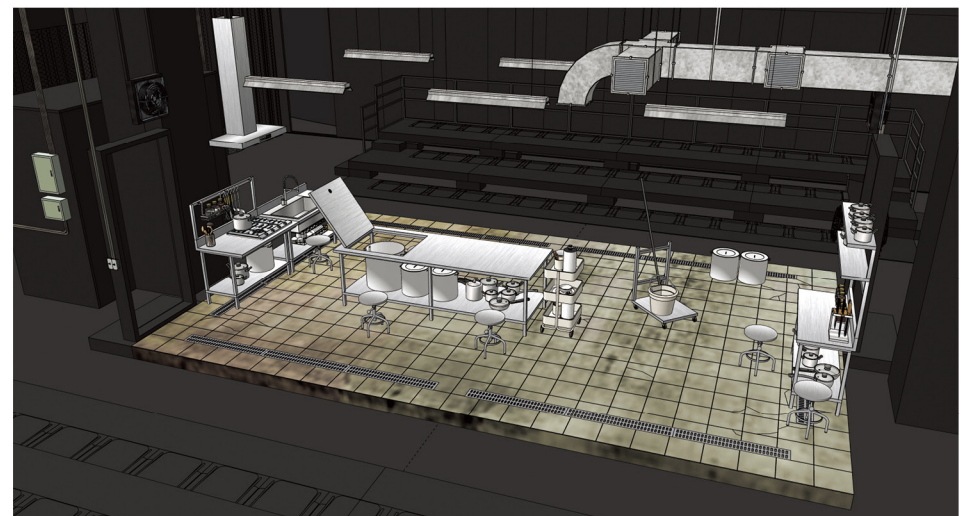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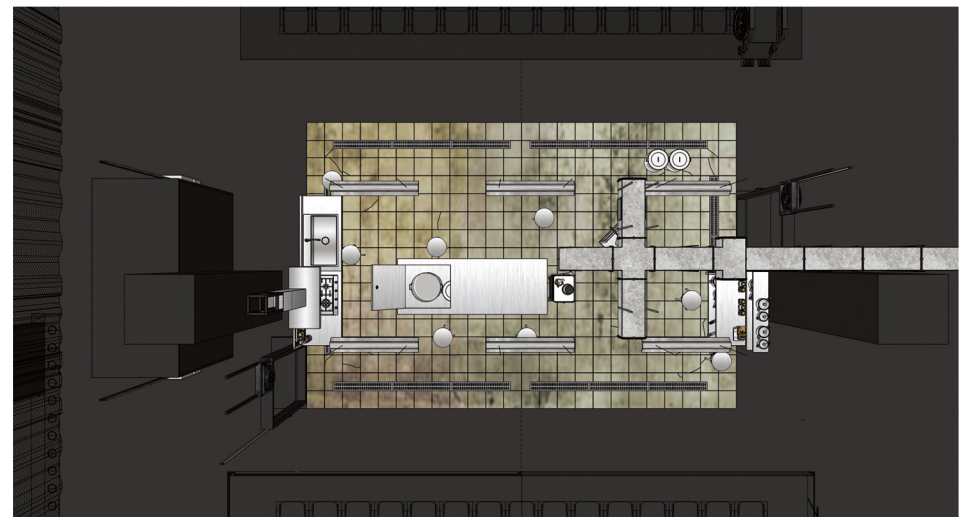
메인 조리대 양쪽으로 사이드 조리대를 두고 있으며,

대형 조리통과 원형의 수들의자가 곳곳에 놓여 있다.

상하수에 조리실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으며, 그 위에

환풍기가 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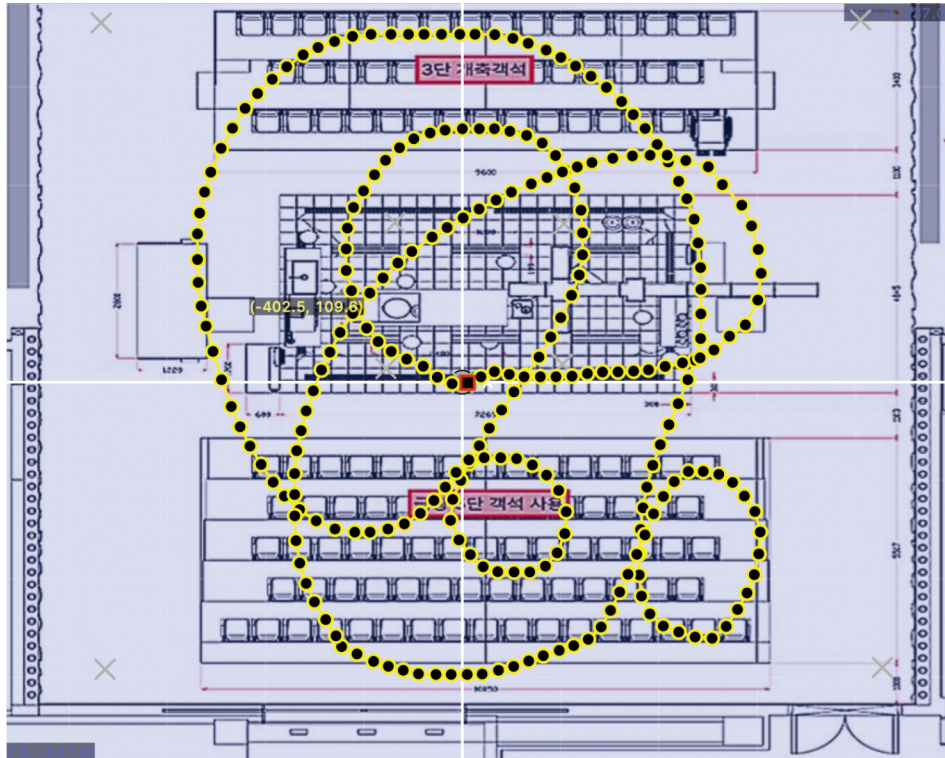
천장에는 낡은 배기구와 등이 달려있다.



사운드 노트

Kayip(카입)

작곡가



〈갱更〉의 사운드 작업은 조리실이라는 일상적 공간이 과거의 기억으로 허물어지는 과정을 청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무대 위의 조리도구들을 각자의 목소리를 가진 행위자로 상정하고 도구들이 서로 부딪히고, 스테인리스 조리대와 마찰하는 소리들을 채집하여 사물이 가진 물성을 청각적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공간에는 산업용 환풍기가 있습니다. 늘 존재하기에 배경으로 놓이던 이 소리는, 가공과 증폭을 거치며 점차 전경으로 위치하며 극의 호흡을 주관하게 됩니다. 무심하게 돌아가던 기계음이 생존의 무게를 담은 피영의 숨결로, 파편화된 심리의 단면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공하여 극의 심리적 공간을 채우는 다양한 질감의 공기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과거(천태의 도축장)와 현재(피영의 조리실)를 청각적으로 잇는 핵심 텍스트로는 전동 도구들의 기계음을 선택해 전체 사운드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날카롭게 돌아가는 블렌더의 회전음이 과거 도축장의 띠톱 소리로 변이되고, 조리실에서 재생되는 팟캐스트의 말소리도 기계음과의 음향적 모핑(Morphing) 과정을 거쳐 점차 소음으로 부서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공간을 맴도는 과거의 기억들을 기계 장치의 소리를 빌어 현재의 조리실로 소환하고자 했습니다.

극의 흐름에 따라, 극 안의 소리(디에게틱 사운드 Diegetic sound)로 시작했던 사운드는 점차 정보와 출처를 잃고 하나의 텍스트로 변화하고 극 바깥의 소리(논-디에게틱 사운드 Non diegetic sound)로 전환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대 구조물 자체를 악기처럼 사용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물리적 구현을 위해 천장의 덕트와 주방 후드 표면에 진동 스피커를 부착하여, 사물 본연의 소리를 사물 자체를 진동시켜 소리를 발생시켰습니다. 극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생경하고 왜곡된 소음이 발생하고 이를 통해 사물 고유의 속성에서 벗어나도록 의도했습니다. 현실의 소리에서 벗어나며 발생하는 이 균열을 통해, 인물들이 경험하는 붕괴의 감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익숙하던 것이 낯설게 감각되는 이 과정은 피영이 자신의 신체를 다시 겪는 방식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고치고 다시 시작하는 갱(更)의 의미를 청각적인 형태로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의상디자인 노트

EK
의상디자이너

대본을 읽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색은 바랜 짙은 버건디와 오래되어 갈색으로 변한 피의 색이었습니다. 선명한 붉은색보다는 시간이 지나 말라붙고 스며들어, 흔적으로 남은 색에 가까웠습니다.

처음 ‘갱’이라는 단어에서는 막연히 다 되어가는 것, 낡아가는 것, 늙어가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갱(更)’에 ‘고치다, 다시 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낡아가는 것과 다시 고쳐지는 것, 끝나가는 것과 다시 시작되는 것. 서로 반대되는 듯한 두 이미지가 한 단어 안에 공존한다는 점에서 의상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인물들의 의상은 각자의 현재와 지나온 시간, 생활이 축적된 옷에서 출발합니다. 바랜 버건디와 브라운, 탁한 블루와 베이지 등 오랜 시간 입고 씻기고 닳으며 변해온 색을 중심으로, 그 위에 새롭게 더해진 색과 각자의 생활, 노동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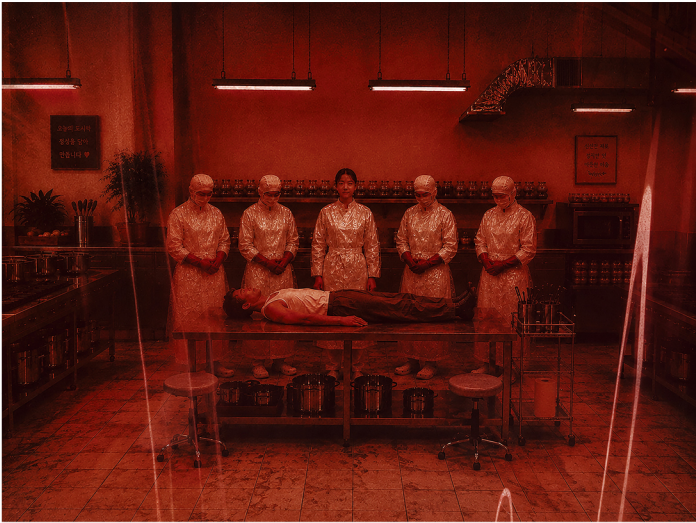
동시에 인물들은 동일한 작업복을 입고 같은 공간 안에 놓입니다.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온 개인이면서도, 어느 순간 노동을 수행하는 하나의 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극의 중반을 지나면서 흰색 조리사복 위에는 투명 비닐을 덧대어 마치 랩으로 밀봉된 가공육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가공하는 사람의 몸이 투명한 막으로 감싸이면서, 어느 순간 그들 역시 가공되고 포장되는 하나의 재료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선명한 붉은 장갑을 더해 깨끗하고 위생적인 조리복의 이미지와 육체적인 감각이 공존하도록 했습니다. 초반의 바래고 말라붙은 피의 색과 후반의 선명하고 강렬한 붉음을 대비시켜, 작품을 관통하는 ‘갱’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남기고자 했습니다.

결국 의상은 시간이 축적된 몸에서 정돈되고, 가공되고, 포장되는 몸으로 변화합니다. 재료를 다루는 몸과 재료가 되는 몸, 낡아가는 것과 다시 고쳐지는 것. 그 경계를 오가며 지나온 시간을 품은 채 다시 이어지는 ‘갱’의 의미를 의상 안에 담고자 했습니다.



* 본 시안에 사용된 이미지는 시기술을 활용하여 완성하였습니다.

하영미

움직임디자인

몸을 하나의 시공간으로 바라보고자 했다. 인물들은 같은 장소에 있어도 저마다 다른 세계를 지나고 있다. 몸은 지나온 기억과 감각, 습관, 두려움과 기대가 축적된 장소로 존재하고, 각자는 저마다의 리듬과 좌표 속에서 살아간다.

이번 작업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몸들이 각자의 시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천태와 피영에게 주목했다.

천태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도 다른 장소를 살아간다. 인지저하증은 단순히 기억이 흐려지는 상태라기보다, 현재의 공간과 기억의 공간이 겹쳐지는 경험처럼 다가왔다. 블렌더가 돌아가는 소리, 스테인리스 조리대, 조리실 바닥 등 조리실에 있지만 그의 감각은 전혀 다른 장소를 향한다. 몸은 현재에 놓여 있지만 시선과 주의, 움직임의 방향은 기억 속 어딘가에 머문다. 이러한 몸의 이중성, 하나의 몸 안에 여러 시공간이 공존하는 상태에 관심을 가졌다.

피영 역시 현재라는 시간 속에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 조기 갱년기를 겪으며 익숙했던 몸의 질서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몸의 변화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현재로 끌어오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천태의 몸에서 보았던 시간들이 더 이상 타인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서도 시작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피영의 몸은 지금의 자신과 앞으로 도래할 자신 사이를 오간다.

배우들과의 작업에서는 인물을 외형적으로 재현하기보다 배우 자신의 신체와 인물의 시공간이 만나는 지점을 찾고자 했다. 특정한 자세나 걸음걸이를 모방하는 대신, 지금 이 몸은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어떤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이번 작업에서 움직임은 동작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몸이 거주하는 세계를 드러내는 과정에 가까웠다. 몸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는지, 시선이 무엇을 따라가는지, 감각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탐색했다. 움직임의 형태보다 중요한 것은 몸이 어떤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가였다.

몸이 단일한 현재 속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몸은 여러 시간과 공간이 겹쳐지는 장소이며, 때로는 기억이 현실보다 더 강한 힘을 갖기도 한다. 이번 작업은 같은 공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공간을 살아가는 몸들에 대한 탐구라고 생각한다. 무대 위에서 서로 다른 세계들이 충돌하고 스쳐 지나가며 잠시 겹쳐지는 순간, 나 또한 하나의 현실이 아닌 여러 겹의 현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작업했다.



방언지도 노트

김호준

방언 지도

이번 방언 지도를 제안 받고 먼저 작품을 읽은 뒤, 작가이자 연출님과 작품과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작품 속 각각의 인물들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각자가 지나온 시대와 세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중 방언 지도를 맡게 된 '천태'는 1945년생으로, 산업화 시대를 온몸으로 겪어온 경상도 출신의 인물입니다.

처음 방언 지도를 시작하기에 앞서 연출님과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익숙해진 '경상도 사투리'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제 화자가 사용하는 말투에 가까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사투리의 억양을 강하게 표현하거나 특정 어미와 단어를 반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인물이 실제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경상도라는 하나의 지역 안에서도 말투는 같지 않습니다. 같은 경상남도라도 부산, 울산, 경남 각 지역에 따라 억양과 사용하는 언어가 조금씩 다르고, 같은 부산 안에서도 살아온 환경이나 세대에 따라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게 구분되지 않을 만큼 미세한 차이이지만, 실제 그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 차이가 분명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 작업에서는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모두 재현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경상도 방언에 익숙한 관객이 들었을 때 '연기하고 있는 사투리'가 아니라 '실제로 저 지역에서 살아온 사람이 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배우와 함께 만들어가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천태는 80세의 노인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상도 방언만을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던 시대의 언어와 말투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공부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오며 사용하는 언어 역시 시대와 함께 조금씩 변하기 때문입니다.

천태에게 사투리는 단순히 출신 지역을 보여주는 장치가 아니라, 그가 살아온 시간과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5년에 태어나 산업화의 시간을 지나오고, 노동자로 살아가며 겪었던 경험들이 그의 말투와 호흡에도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배우가 사투리를 '구사한다'는 느낌보다는, 천태라는 인물이 자신의 삶을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언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바랐습니다. 사투리를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태의 성격과 삶이 그의 말투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이번 방언지도의 중요한 방향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관객들이 천태의 사투리를 들으며 단순히 '경상도 사투리를 잘한다'고 느끼는 것보다, '이 사람은 정말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 같다'는 인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특히 경상도 방언에 익숙한 관객에게 "와, 이 사람 진짜 부산 사람 같네"라는 순간이 한 번이라도 생긴다면, 이번 방언지도의 목표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언어를 통해 관객들이 천태라는 한 인물이 살아온 시대와 세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삶의 흔적까지 조금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DAC Artist 본주 갱更	2026.9.2-9.20 두산아트센터 Space111	
기획·제작 두산아트센터	사운드 Kayip(카입)	두산아트센터
작·연출 본주	음향시스템디자인 SOUND TECH(대표 김성욱)	센터장 강석란
드라마터그 박다솔	음향오퍼레이터 이민주	예술사업1팀장 김요안
조연출 이민주	음향팀 강주희 이원석	공연기획 남윤일 신가은 이정민
출연 강혜련 공상아 곽영현 김은희 이주협 조하석	의상디자인 EK	홍보마케팅 강소라 강소정 김지영 엄한별
프로덕션 무대감독 유성엽	의상제작 이케이코스튬(EKCOSTUME) (대표 이은경)	티켓 이연서 김지은
무대디자인 남경식	분장·소품디자인 장경숙	사무 유은우 이지선
무대제작 와스테이지(대표 조환준)	분장진행 한도희	예술사업2팀장 박찬중
제작팀 이종민 윤진상 이범용 임학균 김대영 정병문	소품팀 김미나	전시기획 장혜정 유진영 전지희 이정민 장보미 홍서희
작화 작화공간(대표 이남련)	움직임디자인 하영미	교육기획 정다운 김서진 이담빈
작화팀 채근주 이주는 박지원 이재형	방안지도 김호준	기술총괄 황동철
무대크루 마정훈 엄경윤	그래픽디자인 박연주	음향 신승욱 류호성
조명디자인 신동선	사진(프로필·설정) 정희승 스튜디오(대표 정희승)	조명 황동철 왕은지 김지산
조명오퍼레이터 김세희	사진(연습·공연) 서울사진관(대표 김호근)	무대 박소연 김태연
조명팀장 정하영	영상(공연실황) 헤즈스튜디오(대표 김선우)	하우스 권지은 유지민 김예지 최지인
조명팀 주재현 김은빈 홍주희 홍유진 유보민 (stageworks)	SNS콘텐츠제작(이미지) 광광광그래픽실험실	하우스 안내원 권현수 김상윤 김서영 김수빈 김진형 김태희 문주아 심채민 안승한 오승현 이나예 이수민 이승훈 이현지 조수빈 차승준
	SNS콘텐츠제작(영상) 필루미에르(대표 이화승)	
	인쇄 으뜸프로세스	



(왼쪽부터) 이주협 공상아 조하석 곽영현 김은희 강혜련 이민주 본주 박다솔

빈자리 없음

2026.10.28-11.15
두산아트센터
Space111

화수목금 7시 30분
토일 3시
월 공연 없음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DAC Artist
이경현

두산아트센터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

공연 예술

연강홀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25.10.30 — 26.1.25
연극 빵야 3.3 — 5.24
연극 플리백 6.19 — 9.6
뮤지컬 렛미플라이 26.10.6 — 27.1.3

Space111

두산아트랩 공연 2026

연극 개기일식 기다리기 1.15 — 1.17
연극 경계넘기: 신진순박소영박뽕 Part.1
1.22 — 1.24
연극 공룡과 공룡동생 1.29 — 1.31
다원 곡예사훈련 2.5 — 2.7
연극 관찰, 카메라, 그리고 남은 에피소드들
3.5 — 3.7
연극 나의 땅은 어디인가 3.12 — 3.14
여성극자네는 왜 그리 굉장하 기다란
담뱃대로 담배를 피이나 3.19 — 3.21
연극 슬픔과 멜랑콜리 혹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외로운 조지 3.26 — 3.28

두산인문극장 2026: 신분류학

New Taxonomy

연극 모어 라이프 4.29 — 5.17
연극 원칙 5.27 — 6.14
연극 나는 나의 아내다 6.24 — 7.12

공동기획

연극 99%천재일기 4.4 — 4.19
연극 경성의 고독한 미식가들 7.25 — 8.9

DAC Artist

연극 갱更 9.2 — 9.20
연극 빈자리 없음 10.28 — 11.15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연극 헬프 HELP 11.25 — 12.13

시각 예술

두산갤러리

두산아트랩 전시 2026 1.28 — 3.7
DCW 2025 퍼블릭: 하루(들) 3.19 — 4.4
DCW 공모 기획전: HUMORS(후모어스)
4.22 — 5.30
두산인문극장 기획전: 3개국어 6.24 — 8.1
두산연강예술상 수상자
정여름 개인전: 복수 8.26 — 10.17
두산갤러리 기획전 12.9 — 27.1.30

교육

두산아트스쿨: 창작 워크숍
1.7 — 2.13, 7.8 — 8.14
두산인문극장 강연 4.6 — 6.29
두산아트스쿨: 미술 4.9 — 4.30,
11.5 — 11.26
두산아트스쿨: 공연 8.18 — 8.21
두산아트센터 투어 9.21 — 9.22
Studio DAC: 아트 클래스 3.25-6.24,
10.7 — 12.16

공모

공연 예술

DAC Artist 1.5 — 1.22
두산아트랩 공연 5.4 — 5.28

시각 예술

두산 해외 레지던시 4.28 — 5.8
두산아트랩 전시 9.29 — 10.9
두산 큐레이터 워크숍 11.17 — 11.27

두산아트센터 02-708-5001 doosanartcenter.com
두산아트센터 두산갤러리 02-708-5050 doosangallery.com
공연, 전시, 교육 및 공모 프로그램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6

